



조간 제7848호 대표전화 062-370-7000 광고문의 062-370-7070

광남일보

GwangNam.co.kr



2025년 5월 23일 금요일 (음력 4월 26일)

이재명, 80% 육박...민주당 '틔발'서 압도적 선두

‘창사 30주년’ 광남일보, 대통령선거 광주·전남 여론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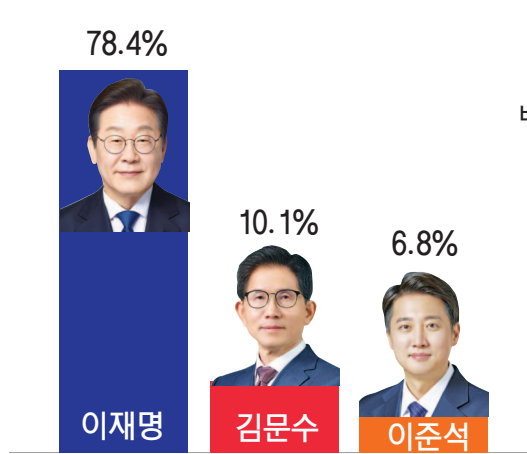
김문수 10.1%, 선두와 68.3%p 격차...이준석 6.8%
지역 중요 공약은 ‘청년 일자리·국립의과대학 신설’

오는 6월 3일 제21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광주·전남지역에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80%에 육박하는 견고한 지지를 얻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광남일보가 창사 30주년을 맞아 여론조사 전문가인 알앤씨에 의뢰해 지난 19일부터 20일까지 광주시와 전남도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남녀 1066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재명 후보에게 투표하겠다는 응답이 78.4%,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 10.1%,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 6.8%로 조사됐다. 앞서고 있는 이재명 후보와 추격하는 김문수 후보 간의 격차는 68.3%p였다. ▶관련기사 3·4면

광주지역에서는 이재명 후보가 79.3%, 김문수 후보 9.2%, 이준석 후보 7.5%, 기타 후보 1.4%, 지지후보 없음 2.4%, 잘 모름 0.3%로 조사됐고, 전남은 이재명 77.7%, 김문수 10.9%, 이준석 6.3%, 기타 1.4%, 지지후보 없음 2.5%, 잘 모름 1.3% 등이었다.

세대별로는 이재명 후보가 광주·전남에 거주하는 40대와 60대로부터 85.8%씩 얻었고, 50대 (85.3%)와 70세 이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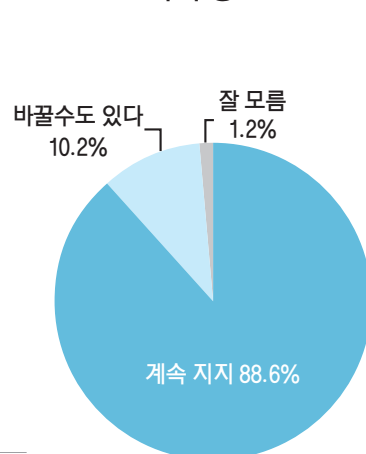
■ 광주·전남 대선 후보 지지도



(81.2%)에서도 80%가 넘는 지지를 받았다. 김문수 후보는 30대 (14.1%)에서, 이준석 후보는 18세 이상 20대 (21.4%)에서 가장 높았다.

또 이재명 후보는 남성 (75.4%)보다 여성 (81.3%)으로부터 많은 지지를, 김문수

■ 지지 강도



후보는 여성 (8.6%)보다 남성 (11.7%)으로부터 더 많은 지지를 얻었다. 이준석 후보도 여성 (4.4%)보다 남성 (9.3%)이 높았다.

이번 대선 ‘투표 의향’을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전체 응답자의 95%가 투표할 가능

성을 보였고, 이 중 66.3%는 ‘반드시 하겠다’고 응답했다.

반면 ‘그때 가서 결정하거나 투표하지 않겠다’고 답한 지역민은 5%에 그쳐 비교적 낮은 비율을 보였다.

또 ‘후보를 계속 지지할 것인지, 아니면 바꿀 수도 있다’는 응답은 10.2%였다. 광주지역의 경우 응답자의 88.7%, 전남지역은 응답자의 88.5%가 ‘항후에도 해당 후보를 계속 지지할 것’이라고 답했다.

대선 후보 지지에 가장 크게 영향을 줄 요인으로서는 ‘후보자의 공약’이 55.8%로 가장 높았고, 이어 ‘TV 토론 결과’가 16.2%였다. ‘후보 간의 단일화’는 7.3%에 그쳤다. 지역별로는 광주지역에서 후보 공약을 가장 중시하는 비율이 60.3%인 반면, 전남지역은 이보다 낮은 52.4%로 조사됐다.

광주·전남의 지역 현안 중에서는 ‘청년 일자리 창출’과 ‘국립의과대학 신설’ 등이 대선 공약에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고 응답했다. 광주와 전남을 묶어서는 ‘청년일자리 창출’이 24.7%로 가장 높았고, ‘전남 국립의과대학 신설’ 요구가 22.8%로 뒤를 이었다.

또 인공지능 (AI) 도시 조성 (13.2%), 지역소멸 막는 출산을 대책 (13.1%) 등의 요구도 있었다. 지역별로 보면 광주에서는 ‘청년일자리 창출’이 31%로 가장 높은 반면 전남도에서는 ‘국립의과대학 신설’이 33.9%로 가장 높았다.

지역 문제와 관련, 광주·전남에서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중요 과제로는 ‘지역 불균형’을 지목했다. 청년 일자리 창출과 의료 서비스 개선도 주요 과제로 떠올랐고, 생활 밀착형 정책에 대한 요구도 강하게 나타났다.

전체 응답자의 35.1%가 ‘지역 불균형 해소’를 가장 중요한 지역 현안으로 응답했고, 이어 청년 일자리 부족 (26.2%), 의료 서비스 부족 (12.2%), 농·어업 종사자 지원 (7.4%), 교육 인프라 부족 (4.6%), 교통 문제 (3.8%) 등의 순이었다.

본사인사

△김상훈 총주필

〈2025년 5월 23일자〉



“꼭 투표...대한민국의 새로운 지도자를 뽑자”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헌법 제1조2항). 지난해 ‘12·3 비상계엄’ 선포로 온 나라가 충격에 빠졌지만 국민들의 단호하고 성숙한 행동으로 계엄사태를 막아내고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했다. 한국민주주의를 실현한 국민의 승리였다. 그 결과 오는 6월3일 제21대 대통령선거가 치러진다. 국민의 선택을 받은 새로운 대통령은 오로지 국민만을 바라보며, 통합의 대한민국 건설에 적극 나서야 한다. 국민들의 적극적인 투표가 미래 우리 삶의 모든 것을 결정한다. 사진은 22일 오후 광주시 선거관리위원회 직원들이 상무시민공원에서 6·3 대통령 선거 투표 참여를 독려하는 캠페인을 펼치고 있다.

최기남 기자 bluesky@gwangnam.co.kr

창사 30th 특집 지면안내

- 광주·전남 미래 30년 전망 5면
- 지방시대 희망 리포트 6면
- 전남의 보물섬 7면
- 광주 ‘AI 중심시대’ 도약 8면

- 전남 ‘해상풍력시대’ 선도 9면
- 신뢰받는 금융 파트너 광주은행 10면
- ESG경영 실천하는 광주신세계 11면
- 중소기업중앙회 ‘로란우산공제’ 12면
- 2025 광주디자인비엔날레 14면
- 축화·축시 15면
- 광남일보가 걸어온 길 16면

- ‘새로운 30년’ 광남일보에 바란다 17면
- 2025 현대세계양궁선수권대회 18면
- 미리보는 2025 국제농업박람회 19면
- 제2의 도약 꿈꾸는 상무지구 20면
- 빛가람혁신도시 조성 10년 21면

토·일 신문 쉽니다

온라인 뉴스는 gwangnam.co.kr서 계속

57광주은행
창립 57주년

광남일보
창사 30th

2025 한국산업의 브랜드 파워

8년 연속 1위

광주은행

1위
우수은행
관계경 금융
2024 상반기

최우수
등급
지역재투자평가
4년 연속

자영업자·소상공인
경영컨설팅
우수사례
3년 연속

금융감독원 선정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선정

은행연합회 선정

지방은행 부문

Korea Brand Power Index

1

2025 한국산업의 브랜드 파워 1위

지역민과 함께 호흡하고 같이 성장하는 광주은행이 되겠습니다!